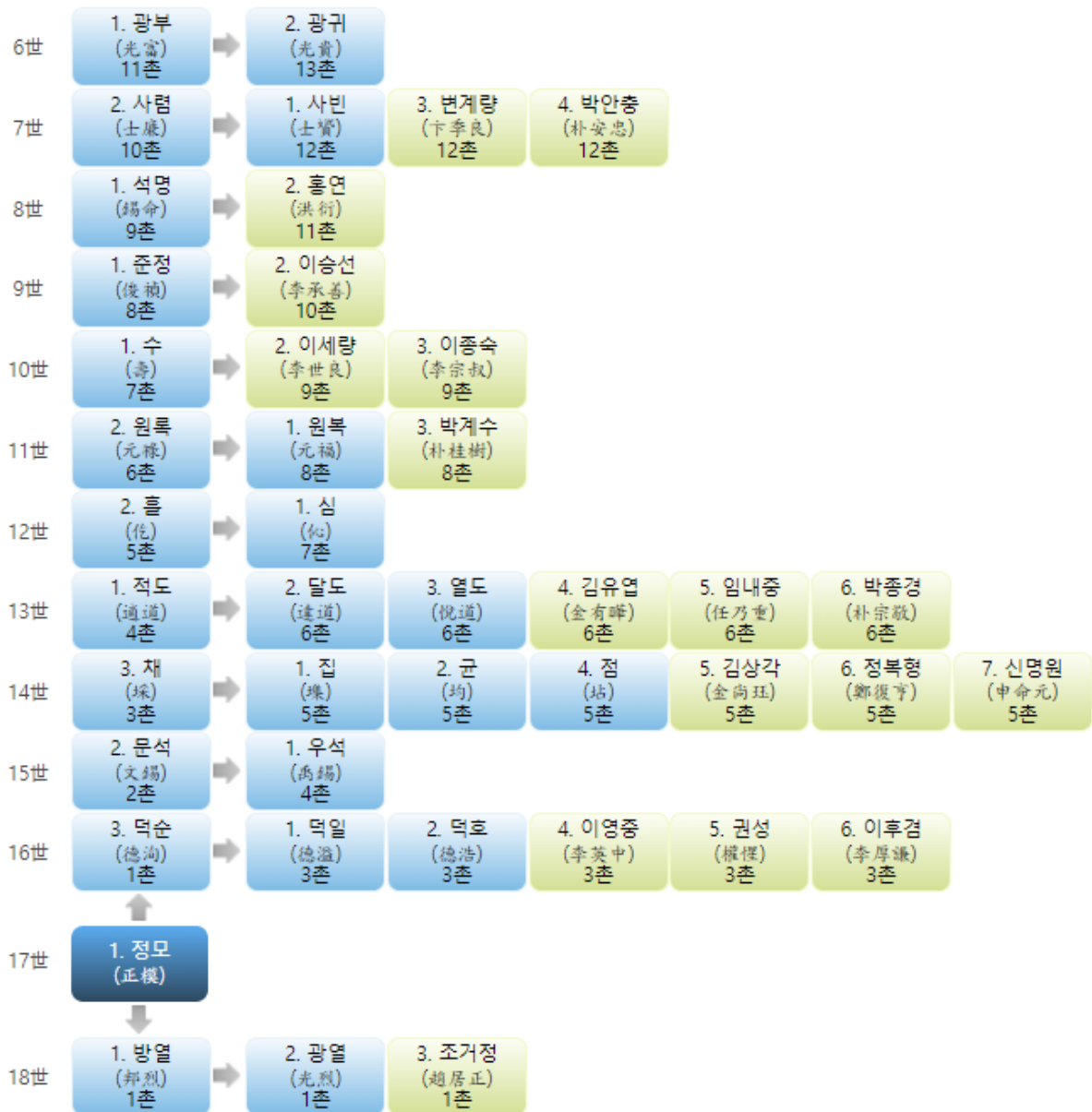


이치재집(二恥齋集) 신정모(申正模)

17世 정모(正模)

父 : 덕순(德洵) 祖父 : 문석(文錫)

읍파(邑派)호계공파(虎溪公派)



신정모(申正模)

항목 ID	GC05200847
한자	申正模
이칭/별칭	경해(景楷), 이치재(二恥齋)
분야	역사/전통 시대, 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유형	인물/문무 관인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이광우

[상세정보]

출생 시기/일시	1691 년 - 신정모 출생
활동 시기/일시	1719 년 - 신정모 진사시에 급제
활동 시기/일시	1719 년 - 신정모 증광 문과에 급제
활동 시기/일시	1728 년 - 신정모 경상도 군위로 유배
몰년 시기/일시	1742 년 - 신정모 사망
추모 시기/일시	1864 년 - 신정모 복관
출생지	신정모 출생지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상리리
거주 이주지	신정모 거주지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
유허비	신정모 유허비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
성격	문신
성별	남
본관	아주(鵝洲)
대표 관직	거창 현감

[정의]

조선 후기 의성 출신의 문신.

[가계]

본관은 아주(鵝洲). 자는 경해(景楷), 호는 이치재(二恥齋). 신채(申埰)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신대석(申大錫)이고, 아버지는 신덕일(申德溢)이며, 어머니는 이성구(李星耆)의 딸 예안 이씨(禮安 李氏)이고, 부인은 안이순(安履順)의 딸 순흥 안씨(順興 安氏)이다. 숙부인 신덕순(申德洵)에게 출계하였다.

[활동 사항]

신정모(申正模)[1691~1742]는 어려서는 중부(仲父)인 신덕호(申德浩)에게 학문을 배웠으며, 장성해서는 이만부(李萬敷)에게 수학하였다. 1719년(숙종 45)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1720년에 부정자, 1725년(영조 1)에 지평(持平)·정언(正言)·사옹원 주부(司饗院 主簿) 등에 임명되고, 1727년 병조 좌랑·강원 도사·병조 정랑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다가, 거창 부사에 임명되자 부임하였다.

1728년 이인좌(李麟佐)의 난 때, 이를 막지 못하여 군위에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석방되었다. 그 뒤 암행어사 이흠(李滄)이 전과를 재조사,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 죄상을 과장하여, 1735년 다시 흥양(興陽)에 유배되었다. 이듬해 충청도 충주로 이배되었다가 적소에서 죽었다. 1864년(고종 1) 복관되었다.

[학문과 저술]

신정모는 귀양지에서 항상 나라와 부모에게 충효(忠孝)를 다하지 못한 점을 부끄러워하며, 그 호를 스스로 이치재(二恥齋)라 하였다. 문집으로는 6권 3책의 『이치재집(二恥齋集)』이 전하는데, 이 문집은 1899년(광무 3) 후손 신상헌(申相憲)과 신돈식(申敦植)이 편집·간행한 것이다. 저서로는 10권 3책의 『소행록(素行錄)』이 전해진다.

[묘소]

묘소는 오토산(五土山)[현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에 위치해 있다.

[상훈과 추모]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에 그의 유업을 기린 유허비(遺墟碑)가 세워졌다.

[참고문헌]

『영조 실록(英祖 實錄)』

『이치재집(二恥齋集)』

『소행록(素行錄)』

『의성 군지』(의성 군지 편찬 위원회, 1998)

『의성 지명 유래』(의성 문화원, 2002)

『아주 신씨 대동보』(아주 신씨 대종회, 2012)

서지정보

원서명	二恥齋先生文集						
현대어서명	이치재선생문집						
청구기호	古 3428-457-v.1-3						
편저자(한자)	申正模(朝鮮) 著	판본사항	木版本	간행지	[刊地未詳]	책권수	6卷 3冊
편저자(한글)	신정모(조선) 저	간행연도	[光武 3年(1899)]	간행자	[刊者未詳]	책크기	32×22.5cm
匡郭	四周雙邊, 半葉匡郭:20×16.8cm, 11行 20字			版心	上下內向細花紋魚尾	표기문자	
表紙,版心,卷頭書名							
序,跋,卷首,卷末	序:戊戌(1898)...金道和, 跋:乙亥(1899)... [申]敦植						
表題紙,內題紙				附			
藏書記,內賜記							
刊記							
자료소개	朝鮮後期の 文臣 申正模(1691-1742)의 文集						
목차							
합철							
소장본							
印記							
四부분류	集部 別集類 一般			기타			
M/F 번호	M/F85-16-96-F						

문집해설

서명	二恥齋先生文集			저자	申正模 著		
현대어서명	이치재 선생문집			간행년대	1899년(광무 3).		
청구기호	古 3428-457						
책수	6권 3책		판본		사이즈 32×22.5 cm.		

조선 후기의 문신 二恥齋 申正模(1691~1742)의 시문집이다. 신정모의 자는 景楷, 호는 二恥齋, 본관은 鵝洲, 아버지는 德湓이며, 어머니는 宣城 李氏로 星耆의 딸이다. 1719년(숙종 45) 증광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1720년에 부정자, 1725년(영조 1)에 지평·정언·사옹원주부 등에 임명되고, 1727년(영조 3) 병조·좌랑·강원도사·병조정랑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다가, 거창부사가 되어 부임하였다. 1728년(영조 4) 李麟佐의 난 때, 이를 막지 못하여 군위에 정배되었다가 이듬해 석방되었다. 그 뒤 암행어사가 전과를 재조사,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 죄상을 과장하여, 1735년(영조 11) 다시 興陽에 정배되었다가 7년 뒤 적소에서 죽었다. 1864년(고종 1) 복관되었다.《二恥齋先生文集》은 모두 6권 3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권1~3에는 賦 2편(感春賦 외), 辭 3편(龔隱窩辭寄呈申上舍泰登 외), 詩 140수(賞春謔詠 외), 書 28편(與息山李丈萬敷 외), 雜著 13편(自叙 외), 序 3편(四書撮要圖說序 외), 記 7편(八智齋舍記 외), 跋 3편(梅堂先生年譜跋 외), 箴銘 10편(元日二箴 외), 說 7편(敬說 외), 辨 1편(游楊尹諸公下著伊川行狀辨), 上樑文 1편(花峯精舍上樑文) 등이, 권4~6에는 祭文 8편(祭安季皞聖世文 외), 哀辭 4편(族兄上舍公重模哀辭 외), 遺狀 7편(祖考處士府君行狀 외), 墓碣銘 1편(處士迎安李公墓碣銘 외) 등이 수록되어 있고, 附錄으로 年譜, 言行拾錄, 輓詞 29수, 祭文 18편, 行狀·墓碣銘·告由文·後叙 등이 수록되어 있다. 《二恥齋先生文集》은 후손 相憲과 敦植 등이 저자의 유문을 수습·편집하고 金道和·金瑞一 등에게서 서문을 받아 1899년(광무 3)에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권말에는 相憲과 敦植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송웅섭)

문집개요	
문집명	이치재집(二恥齋集)(18C)
간략서지	二恥齋 申正模의 문집. 6 권 3 책.<古 3428-457>
간략해제	五世孫 申相憲이 申正模의 遺文을 수습하였다. 1864년 고종이 즉위하면서 저자의 복권이 이루어져 본격적인 문집간행의 길이 열렸다. 그해에 李敦禹(1807~1884)에게 행장을 받고, 1886년 金瑞一(1694~1780)이 文集後叙를 쓰고, 1898년 張錫龍(1823~1906)이 묘갈명을 지었다. 문집간행의 구체적인 발의는 1887년에 시작되어 문중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金道和(1825~1912)의 서문을 받고, 상헌의 발문과 從五世孫 申敦楨의 발문을 받아 1898년 문집이 완성되었고 1899년에 간행되었다. 저자와 관련된 자료로는 1980년 二恥齋文獻刊行所에서 발간된 {素行錄} 10권 3책이 있다. 저자가 무고로 戊申亂에 연루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무신난의 처리과정에서 희생된 인물의 사례를 이해하는데 의미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18세기 전반 안동을 중심으로 영남문인들의 학문적 문제의식과 교류망을 이해하는데도 귀중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저자소	
편저자	신정모 (申正模)
저자개요	1691~1742 (숙종 17~영조 18)字: 景楷, 號: 二恥齋, 本貫: 鵝洲, 父: 德湓, 母: 宣城 李氏 星耆의 女

저자내용	<p>조선후기 문신. 어려서 仲父 申德浩에게 학문을 익혔고, 立巖 孫汝斗에게도 배웠다. 장성해서는 息山 李萬敷와 密菴 李裁를 종유하였다. 1719 년(숙종 45) 증광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1720 년 부정자, 1725 년(영조 1) 지평, 정언, 사옹원 주부 등에 임명되었다. 1726 년 설서(說書)에 추천되었으나 곧 사퇴하였다. 1727 년 병조좌랑, 강원도사, 병조정랑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다. 이후 거창부사를 제수받아 어머니를 모셨는데, 1728 년 이인좌의 난 때 이를 막지 못하여 군위에 정배되었으나 이듬해 석방되었다. 그 뒤 암행어사 李滄이 전과를 재조사하여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 죄상을 과장하였다. 이 때문에 1730 년 高興에 정배되었다가 1735 년(영조 11) 왕세자가 탄생한 것을 축하하면서 錦陽으로 이배, 이듬해 충주에 부처되었다가 적소에서 죽었다. 1864 년(고종 1)에 복관되었다. 저술에 {이치재집}이 있다.</p>
------	---

내용개요

내용제목	二恥齋集 내용개요	청구기호	古 3428-457
------	-----------	------	------------

권제	권제목:卷一
二恥齋先生文集序 (序 1)	1898. 金道和가 쓴 서문이다. 가문의 유서 깊은 忠孝를 칭찬하고, 무신난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변파하고, 후손 相憲이 遺文을 수습하여 간행했다는 내용이다.
效楚辭體寄楸谷幽居-金星慶 (1)	초사체를 모방하여 추곡 金星慶이 사는 집에 보내 준 사부. 그 好文의 자세와 古人을 흠모하는 풍모를 칭찬하고 함께 소요하고픈 마음을 담았다.
感春賦 (1)	봄의 흥취를 노래한 사부. 봄바람에 만물이 생동하는 정경을 노래하고, 忠愛의 어려움을 토로한 내용이다.
龔隱窩辭寄呈申上舍-泰登 (2)	1724. 龔隱窩에 대한 사부로 '龔隱'이라 이름 지은 취지를 노래한 것이다. 上舍인 申泰登에게 드린 것이며, 권 3 의 龔隱窩記와 연관된 자료이다.
憂中樂辭 (3)	즐거움 속에서 어머니 상의 슬픔을 견뎌낸다는 내용의 사부이다.
陰厓辭-李紆遊樓 (3)	1736. 기묘사림인 陰厓 李紆(1480~1533)에 대한 사부. 忠州에 유배되었을 때 인근 이자의 유적을 방문하고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자신의 유배된 처지를 이자와 견주어 보며 그의 풍모를 그리는 내용이다.
詩 (4)	<p>丁亥春讀書雲嵐一日諸長老齊會煮蕨朴石城-文道- 首呼陽字韻一節皆以次續成余亦謹次(1707), 賞春謾詠, 夢見慈顏起書一絕, 訪姜英陽子淳-樸-奉贈二十八字, 聞河聖則所居江心臺景致絕佳而未得一往遊覽聊和板上韻-癸卯(1723), 謹次上舍族叔- 德涵-洗心亭韻和呈密菴李丈-裁, 道院會席酬權台仲-相一-吳致重-尙遠- 雨兄兼呈息山李丈-萬敷, 敬次李息山和權員外韻賜寄, 又七言一絕, 謹次道南送別韻及歸路口占韻謝呈吳致重, 又次權台仲寄惠三篇詩及看字韻謝呈, 寒食拜鷹峯先瑩-虎溪公墳山-甲辰(1724), 奉次甘圃壁上韻, 月皐見瀑布遂賦一詩以標其勝, 與河上舍聖則-瑞龍-留討藏待院數日以四韻送別求和, 次謝河上舍寄惠四韻, 八月勝騎卽除命赴京到洛江作-丁未(1727), 望王都有作, 詠聞慶飛鴻亭申察訪-弼貞-家盆梅, 肅拜後出漢江上疏吟成一絕-戊申(1728), 遊碧派亭四韻-</p>

亭本清平尉所構而今爲王子延所有壁上又有肅宗大王親題四韻詩敬讀再三感涕自零遂續四韻以寓微臣之忱，肅拜後棄歸議政諸宰以榮養挽止遂成一絕，述懷謾詠，述懷，讀啓夢本篇，宋兄以金七灘-世欽-詩筆見示感書一首，奉送伯氏還鄉，別伯氏後數日奉懷有作，九月十一日母氏生朝謹次朱晦菴壽母韻以紓懷，申震伯-復東-贈楚辭并惠三絕句強拙步和，挽洪翊衛丈-相民，挽南護軍-履夏，挽李姑叔-厚謙，挽金明五，挽李鼎叟，挽鄭景亨-辛丑(1721)，挽權蒼雪-斗經，挽洪判書-萬朝-丙午(1726)，挽成參奉-大夏，挽曹處士-善長，白雲精舍雜詠-并序，白雲精舍-七言，自訟堂，樂朋齋，待賓廳，二恥軒，擎天峯，峨冠峯，望辰峯，望雲臺，仁智壇，天海臺，常關門，學圃亭，詠歸臺，觀海亭，坐憩巖，上白雲，下白雲，八雲徑，出雲臺，石井-五韻，巖澗，蓮沼，菊塢，竹籬，桃溪，槐巷，松嶺，長林，遠岫，子規，雉鳴，四季花，百日紅，連夜夢見慈顏及伯氏起坐書懷，雨後出山謾詠-二首，踏青日與諸友煮花賞春-二絕，秋夕，登蓮華山，登喚仙臺次壁上韻，移寓廣石遊元巖作，七月既望效赤壁古事-二首，書洪亮卿問札後，邑大夫使人賀內地付處之命瞻天望雲自不禁感懷一絕以紓，大山書堂儒生感來惜別其中朴時鵬林伯壽尤挽行掩淚遂示一律，南山庵在忠原鎮山絕頂長郊數百里皆在目前暇日遊覽吟成一絕，月夜散步，感懷有作，晚步溪邊，讀晦菴遠遊篇，人日謾詠，誦朱書，雨後散步，感懷，廣石亭雜詠-并序，廣石亭，紫芝城，仙巖，鷲嶺，門巖，金嶺，吹簫峯，月影峯，松壇，竹垣，漁舫，杜若洲，述懷，九日-二首，又，又次太白龍山韻，放懷次太白十日卽事韻，秋夜聞鴈，權士軒-繳-要余和其壁上韻歸後構成奉呈，夜月清甚謾書所感，夜間漁謳，正月望夜見月有感書一絕，謫居謾詠，夜讀書有作，讀王魯齋天地萬物造化論有感，再遊落霞臺-二首，又，內院月夜吟，少年日書懷-除夕前一日呼爲少年日，山臯卽事，書懷，雨中翫易遣懷，訪申上舍別贈二絕，又七言，七月十三夜大風雨。

권제

권제목:卷二

詩

古體一首寄呈楸谷-金星慶，夜起看月，往在戊午冬李濟卿氏訪余於龍岸因留一詩以別余忙未卽和謝厥後仍遭巨創精魄流遁并與本詩而忘之日余適往楸谷李兄亦來在座言及前詩索報頗緊余爲之瞿然推謝既歸卽次其韻併用別韻成三首奉呈以塞前日逋慢之辜切望特恕還惠瓊報(1738)，申上舍和送前詩更步灰字以謝，李齊仁更以盆字韻寄示追步以謝，中元節書懷，又七言一絕，八月既望風清月白夜景甚適謾成二絕，伯兒讀小學敬次寒暄堂讀小學韻書示，題寧國寺，落帽佳辰不見黃花謾詠一絕，又七言律一首，聞菊，菊答，楸洞兩兄同作嶺行奉贖一律，寧國寺聯句，金兄君瑞-星慶-作湖南行詩以奉贖，雪月夜乘水鷺溪-臘月，許明遠讀朱書喜贈古詩及四韻，四韻，卽事，同諸益翫月，次許兄道真四韻，與諸益出遊械月次金時會韻，次金時會韻-二首，與金兄尋鷹嶺遺址，送春，寄題朴友懶隱堂，贈金時會觀國之行，述古體一首寄許明遠，病中口呼古詩一章，四言。

與息山李文-萬敷-乙未(8)

1715. 여름에 식산 이만부(1664~1732)에게 보낸 편지. 25 세 때 편지로 爲學的節度에 대해 논하였고, 책 상자를 짚어지고 門下에 가서 배우고 싶으니 가르침을 베풀어달라는 내용이다. 詩 다음에 분권하지 않고 바로 書を 편집하면서 쪽수가 1 부터 다시 시작함.

與息山李丈-丙申 (2)	1716. 9 월. 이만부에게 보낸 편지. 居敬窮理의 공부가 전일하지 못함을 자책하고 門人弟子의 반열에 나아가 비루한 자질을 바꿔보고 싶다는 내용이다.
與息山李丈-癸卯 (3)	1723. 이만부에게 보낸 편지. 33 세 때 편지로 옛 성현은 博文約禮를 道에 들어가는 문으로 여겼고, 송대 선유도 철저히 義理를 분석하여 종신토록 실천하였으나 근세의 학자들은 그러하지 못하다고 비판하는 내용이다.
與息山李丈-甲辰 (5)	1724. 이만부에게 보낸 편지. 密菴 李裁가 편찬한 {朱書講錄刊補}는 僞黨의 학문에 뜻을 둔 선비의 指南이 되니 간행하여 널리 유포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만부가 편집한 {道東編}도 후학에 보탬이 될 것이니 완성되었다면 보고 싶다는 내용이다.
與密菴李丈-裁-甲辰 (6)	1724. 밀암 이재에게 보낸 편지. 1722 년(경종 2) 永溪書院의 洗心亭에서 헤어질 때 말씀대로 차운하여 시를 올리니 보아달라는 요청과, {顏會遺書} 및 {朱書註解}를 빌려주시길 바라는 내용이다.
與密菴李丈 (7)	밀암 이재에게 보낸 편지. 빌려주신 {주서강록간보}를 반복해서 음미하며 文義가 이상한 곳을 정리했고, 1724 년에 있었던 道南書院의 {近思錄} 강해에서 의심된 것을 정리하고, 별도로 {근사록}에서 궁금한 것을 일일이 기록하여 보내니 살펴달라는 내용이다. 관련 별지 3 개와 이재의 답변이 함께 편집되어 있음.
答密菴李丈-乙巳 (34)	1725. 밀암 이재에게 보낸 답장 편지. {주서강록간보}의 오류를 줄여서 후세에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戒懼謹獨은 已發未發에 분속되는데 지금 戒懼가 動靜을 겸한다는 의견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答密菴李丈-丙午 (26)	1726. 밀암 이재에게 보낸 답장 편지. {中庸}의 戒懼兼動靜說에 대해 다시 의견을 피력하는 내용이다.
與顧齋李丈-棧 (29)	顧齋 李棧(1669~1734)에게 보낸 편지. 1719 년(숙종 45) 한번 뵈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왕래하며 질문한다고 하면서 별지로 禮와 관련된 질문을 한다는 내용이다. 父가 養子の 喪에 3 년 복을 입지 않는 것에 대한 의견과, 國葬과 私葬이 겹쳤을 경우로 因山日 전에 挽詞를 남에게 부탁하고 그것을 들어주는 일에 대한 질문이다. 이만은 李玄逸의 조카로 禮學에 조예가 깊었던 인물이다.
答權清臺-相一-癸卯 (30)	1723. 清臺 權相一(1679~1759)에게 답장한 편지. 두문불출 노친을 모시고 있으며 志力이 강하지 못하여 舊習에 얽매어 허송세월한다는 내용이다.
答權清臺 (31)	청대 권상일에게 답장한 편지. 虎溪之會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것, 道南書院과 近岳書院의 會講에 참석하길 바란다는 것, 과거공부에만 힘쓰고 성리학 공부에 착실하지 않는 세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與李訥隱-光庭 (32)	訥隱 李光庭(1674~1756)에게 보낸 편지. 선조의 행장과 묘도문자가 백여년 후에 외손의 口傳으로 슬쩍 들어간 사실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내용이다.
與柳慵窩-升鉉-辛丑 (32)	1721. 3 월. 慵窩 柳升鉉(1680~1746)에게 보낸 편지. 勤愼 두 글자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권고하는 내용이다. 그의 어머니가 아주 신씨 申以徵의 딸이다.
與玉川趙丈-德隣-乙巳 (33)	1725. 玉川 趙德隣(1658~1737)에게 보낸 편지. 僞黨에서 의지하는 바가 크고 새로운 임금께서 등극하셨으니 유배지에 오래도록 두지 않을 것이므로 自愛하길 당부하는 내용이다.

與申察訪-弼貞 (35)	病翁 申弼貞(1656~1729)에게 보낸 편지. 向裏用功(마음안을 향하며 공력을 기울이다.)하는 것이 진정한 길을 찾고 나태한 氣習을 바로잡는 길이라는 내용이다.
與申察訪-癸卯 (35)	1723. 신필정에게 보낸 편지. {延平書}를 읽으면서 큰 위안이 된다는 것과, 4월에 놀러갔던 聞慶 仙遊洞 경치에 대한 감회를 밝힌 내용이다.
答李輝祖-重煥 (36)	輝祖 李重煥(1690~1752)에게 보낸 답장 편지. 지난번 편지에서 有體無用之學(체는 있고 용이 없는 학문)이 없다고 언급한 것은 매우 정확한 지적이며, 체와 용은 하나라도 폐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與鄭成仲-之鍊-丙申 (37)	1716. 成仲 鄭之鍊에게 보낸 편지. 지난 가을 述懷詩를 보고 志業의 탁월함에 감복하였고, 四書와 程朱文集에 힘쓰고 전에 말했던 敬에 힘쓰면 옛 성현의 지위를 엿볼 수 있다는 내용이다.
答河進士聖則-瑞龍 (39)	聖則 河瑞龍에게 보낸 답장. 飛鴻亭의 申丈(미상)과 문경 선유동에 놀러가려던 일이 무산된 것을 아쉬워하고 그 계획이 다시 세워지길 바라는 내용이다.
答河聖則 (39)	성칙 하서룡에게 보낸 답장. 학문의 방법을 서술한 것으로 {논어}와 {심경}의 要語에 힘쓸 것을 역설하는 내용이다.

권제 권제목:卷三

答李小隱-景翼 (1)	小隱 李景翼에게 보낸 답장. 권상일과 함께 도남서원에서 만나 錦陽에서 오고간 이야기를 듣고 {刊補}를 빌려보고 미심쩍은 곳을 표시하여 돌려주었고, 아울러 {寒泉集}의 의문점을 기록하여 가르침을 받았던 일을 술회한 내용이다.
答洪參奉-重寅-朔寧-重徵 (1)	花隱 洪重寅(1677~1752)과 梧泉 洪重徵(1682~1761)에게 보낸 답장. 국휼 때 儀禮의 과실과, 李承宣이 올린 두 번째 疏章을 고쳤다고 들었는데, 그 儀定節目과 소장을 보여달라는 내용이다.
答吳致重-尙遠-甲辰 (2)	1724. 致重 吳尙遠에게 보낸 답장. 天雲齋에서의 첫 만남을 회상하면서 도남서원의 講席에서 식산 이만부 선생과 만나 강론한 경험은 10년 독서와 맛먹을 만큼 소중한 기회였다고 술회하였고, 이만부와 권상일과 공유하길 권유하는 내용이다.
答金戰兢齋-瑞一 (2)	戰兢齋 金瑞一(1694~1780)에게 보낸 답장. 보내 준 편지에서 언급한 松壇古壁의 말에 대한 소감을 기술한 내용이다.
答南國老-耆-問目 (3)	國老 南耆의 문목에 의견을 개진한 답장. 남구가 지은 情과 意의 그림과 그 설명에 대하여 더 세심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이다. 첨부된 「情意之圖」에서는 정과 의에 대하여 주자 등 송대 유학자와 퇴계의 정의를 토대로 의견을 피력하였다.
與李副學-眞望-壬寅 (5)	1722. 陶雲 李眞望(1672~1737)에게 보낸 편지. 마음을 다하여 國事를 偏黨하게 하지 않기를 당부하는 내용이다. 이진망은 이경석의 증손.
答上舍族叔-德涵 (5)	족숙 申德涵에게 보낸 답장 편지. 洗心亭 차운시를 보시고 부족한 곳을 고쳐달라는 내용이다.
上伯兄晚香齋-戊申賊警時 (6)	1728. 큰 형 晚香齋에게 올린 편지. 무신난 때 청주, 안음의 적진 상황을 기술하고 노모를 피난시키는 일 등을 알리는 내용이다.

自序-丁亥 (6)	1707. 17 세에 쓴 글로 鄒魯之鄉으로 불리어지던 영남의 학문풍토가 최근 100 년동안 詞章에 치우치는 현상을 스스로 반성하고 先聖. 先師의 길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이다.
娥林縣榜諭節目-戊申 (7)	1728. 아림현[거창]에 부임하여 작성한 것으로 발생할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 들었던 것을 바탕으로 大小民吏를 깨우치려는 목적으로 만든 절목이다. 그 내용은 ① 三綱五倫의 실천자에 대한 포상 ② 養老의 실천 ③ 士子에게 讀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독려함 ④ 鄉校 위상의 제고 ⑤ 향교와 서원에서 色目을 나눠 분쟁하지 말 것 ⑥ 편지를 보내거나 직접 찾아와 읊을 문제를 지적하면 실천할 것 ⑦ 검소한 식사와 가벼운 세금을 약속하고, 官用 물품의 절약의 강조함 ⑧ 禁酒 조치 ⑨ 鄉廳을 통한 政事 실천 등이다.
賊變時報營草 (9)	1728. 무신난 당시 감영에 보고한 문서의 초안이다. 앞부분 일부가 유실되었다. 난이 일어나자 吏胥와 軍任輩는 도주하였고, 자신은 80 노모를 모시고 있는 상황에서 도주한 일의 불가피함을 변론하고, 千把總輩의 이반 현상과 물자의 약탈 상황 등을 보고한 내용이다.
陳情文 (11)	무신난 때 부임한지 얼마 안 되었고, 거창이 본래 다스리기 어려운 고을로 알려진 것임을 전제하고, 老母를 모시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도주했음을 자세히 변론하는 내용이다. 충신을 구할 때는 반드시 효자 집안에서 한다는 영조의 비답이 첨부되어 있다.
立春日書示伯兒六章-并序 (13)	입춘을 맞이하여 16 세가 된 큰아들에게 교훈 6 가지를 써주며 분발을 독려하는 내용이다. ① 경박함을 바로잡을 것(矯輕) ② 게으름을 경계할 것(警惰) ③ 겸손에 힘쓸 것(勉謙) ④ 말더듬을 경계할 것(戒訥) ⑤ 올바른 독서를 배울 것(教讀) ⑥ 인의예지 및 효제충신을 힘써 실천할 것(勗行)
喪禮記疑 (14)	喪禮에서 의문점을 비망록처럼 기록한 글이다. 모두 6 개로 구성되어 있다. ① 小殮 뒤의 拜賓의 예 ② 五服 중에서 大功에서 생략된 것에 대한 의문 ③ 父가 사망했을 때 嫡孫의 承重者가 없는 경우와 삼년상 기간 중에 母나 祖父母가 사망한 경우 喪服의 문제 ④ 承重한 曾孫이나 玄孫이 그 曾祖나 高祖부모의 상을 당했을 경우 그 祖母, 母, 妻의 상복문제 ⑤ 父가 사망하고 아직 殯을 하지 않았는데 祖父가 돌아가셨을 경우 상복문제 ⑥ 父가 살아계실 때 母가 사망하여 服을 입는 문제.
心喪人髮網巾毛氈頭記疑 (16)	心喪을 할 때 髮網巾과 毛氈頭의 사용 문제에 의문점을 정리한 글이다. 이것들은 평소에 장식하는 물건이지 심상할 때 착용하는 물건이 아니며, 자신이 本生父母의 심상 때 平涼子와 黦布網을 사용했으나 후덕한 뜻을 나타내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 자손들은 유념하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四書撮要圖說序 (17)	「사서촬요도설」에 대한 서문이다. 申應泰(號: 龍厓, 1643~1728)의 저술로 花峯에 유배되어 있을 때 그의 손자 永昌이 찾아와 부탁한 것이다. 四書에서 절실 말을 고르고 그림을 그렸고, 다시 {近思錄}으로 사서를 보완하여 핵심어를 뽑고 그림을 그리고 그 뒤와 권말에 첨부하였다. 간간히 자신의 견해를 첨부하였는데 총 264 개의 그림이 있는 것이다.
書藍田遺約條目後序	「남전유약」의 조목 뒤에 쓴 서문이다. 呂氏鄉約의 취지를 계승하기 위해 고을의

(18)	6,7 명의 士友와 함께 稷를 만들고 그 이름을 '남전유약'이라 명명한 것이다. 여씨향약 4 조와 本註를 나열하고 약간의 節目을 만들어 첨부하였다.
送壺山宋公序 (19)	壺山 宋公(미상)을 전송하면서 써준 서문이다. 저자가 전남 高興으로 유배되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으로 40 세가 넘었으나 매일 (대학)을 암송하고 간간히 (陸宣公奏議)를 抄錄하는 등 好學의 자세를 잃지 않은 것을 높이 평가하며 더욱 힘쓰기를 당부하는 내용이다.
八智齋舍記 (20)	義城의 八智山 자락에 위치하는 아주 신씨의 팔지재사의 기문이다. 시조 申祐이래 申壽, 懷堂 申元祿(1516~1576)의 묘소가 있는 곳으로 그 아래 藏待書院에 8 인을 모시고 사림들이 不遷之主를 만들어 別廟를 조성하였다. 그러나 제사지낼 齋屋이 갖추지 못하여 불편하던 차 재종숙이 그 일을 주관하여 마무리하고 문중에서 기문을 짓게 했다는 내용이다.
有斐堂記 (21)	유비당의 기문이다. 柳士眞이 '有斐'의 뜻을 부여하여 기문을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었다. 그의 高祖가 집둘레에 翠竹 천 그루를 심고 '淇澳有斐'의 뜻을 취하여 자손들의 進學과 自修의 공부를 권면하는 뜻을 잇기 위한 것이라며 그 취지를 높이 평가하는 내용이다.
水舍記 (23)	宋公(미상)이 지은 水舍에 대한 기문이다. 물의 성질인 順下, 受穢, 積小成大의 뜻을 취하여 건물이름을 독특하게 지은 안목을 높이 평가하고 권면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大江書齋重修記 (24)	1730. 다시 지은 大江書齋에 대한 기문이다. '大'자의 의미로 講習의 즐거움을 풀이해달라는 宋君(미상)의 제안을 받고 지었다. 모든 일이 積小成大하는 것이니 대에 치중하지 않도록 힘쓰기를 당부하는 내용이다.
觀水亭記 (26)	관수정의 기문이다. 蓮花峯에 謫居할 때 관수정 주인이 柳君(미상)을 통해 기문을 부탁한 것이다. 관수정의 주변 경치와 구조를 묘사하고 주인이 隱遯과 考槃에서 뜻을 취했으나 현실로 되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고 권면하는 내용이다.
龔隱窩記 (27)	申泰登의 농은와에 대한 기문이다. 귀머거리에 의탁하여 스스로 세상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崔致遠이 가야산에 은둔하여 돌에 새긴 시에 '항상 是非의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내용이다.
三亥烈婦記 (28)	삼해의 열부의 의리를 추모하는 기문이다. 삼해태수 이 아무개가 부임하는 날 신랑 행렬과 만났는데 말에서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杖殺시키자 그 아내가 官妓로 잠입하여 마침내 태수를 죽이고 佩刀로 간을 꺼내 먹어 죽은 남편의 원수를 갚은 일화를 서술하고 그 아내의 의로움을 기리는 내용이다.
懷堂先生年譜跋 (29)	회당 申元祿의 연보에 쓴 발문이다. 그의 유고로 학문과 躬行實踐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전제하고 문집의 구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1739 년(영조 15)경에 藏待書院에서 간행하였으며, 저자가 충주에 유배되었을 당시 발문을 썼다.
敬書退陶先生解釋朱夫子觀書有感詩後 (30)	퇴계 李滉이 해석한 朱熹의 觀書有感 시를 감상하고 그 뒤에 삼가 쓴 글이다. 이항의 해석내용으로 오래 동안 고심하던 의문이 해결되었다고 하고, 그 주석이 매우 명쾌하여 마치 직접 가르쳐주는 것 같다는 내용이다.
書諸葛武侯事蹟後 (31)	제갈무후사적 뒤에 쓴 글이다. 東漢과 西漢의 人才 가운데, 張子房, 嚴子陵, 董仲舒, 司馬遷, 班固, 韓信 등과 제갈량을 비교하고 人品이 가장 뛰어나다고

	주장하고 程朱, 張南獻 등의 평가를 소개한 내용이다.
元日二箴-并序 (33)	元일에 쓴 2개의 잠이다. 18세에 지은 것으로 옛 성현은 오직 內에 힘을 다하였다고 하면서 성현의 경지에 진입하기 위한 다짐으로 晦齋 李彦迪의 元朝五箴을 모방하여 지었다고 작성 취지를 밝혔다. 情慾을 다스리겠다는 窒慾箴, 마음을 誠敬으로 보존하겠다는 存心箴으로 이루어져 있다.
自訟箴-并序 (33)	자신을 송사한다는 잠이다. 世務에 밝지 못하고 오직 忠孝만 안다고 하면서 무신난 때 老母를 모시고 도주한 사태를 아울러 반성하는 내용이다.
二獨箴-并序 (35)	蔡西山先生이 '홀로 가도 그림자에 부끄럽지 않고, 혼자 자도 이불에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으로 자식에게 훈계한 사실을 빌어 고흥에 유배된 자신을 경계하기 위해 지은 잠이다. 獨行不愧影箴, 獨寢不愧衾箴 등의 두 개의 잠으로 구성되었다.
自新箴-并序 (35)	유배지에서 새해를 맞이하여 임금과 노모를 그리워하는 여가에 스스로 새롭기를 다짐하는 잠이다.
至日箴示伯兒-并序 (36)	동지의 의미를 주역의 復卦의 형상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학문에 힘쓰기를 독려하는 내용이다. 큰 아들에게 보여준 것으로 經書와 史書의 균형있는 독서를 강조하였다.
處困篤志箴寄伯兒-并序 (37)	곤궁함에 처할수록 뜻을 독실하게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잠으로 큰 아들에게 주었다. 蔡西山이 유배 갔을 때 자식에게 훈계한 내용과 일치한다고 하였으며, 二獨箴의 취지와 일치한다.
二恥齋銘 (37)	유배지의 처소를 이치재라고 하고 스스로를 경계하는 명이다. {孟子}의 羞惡之心을 거론하며 무신난에서 나라에 忠을 다하지 못한 것이 첫 번째 恥요, 노모와 떨어져 孝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두 번째 恥라고 하면서 자신은 두 개의 부끄러움이 있다는 내용이다.
敬說 (38)	堯舜에서 송대의 유학자들까지 敬의 중요성을 언급한 내용을 정리하고, 物欲에 가리워진 本然之天을 회복하는 것이 학자가 힘써야 할 일인데, 그 存養復初의 良法이자 學者의 선무가 敬임을 역설하는 내용이다.
定志說-戊子 (39)	1715. 학문에 대한 뜻을 견고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논설이다. 어려서 古人之 爲己之學에 뜻을 두었으나 慶山의 科試 때 만연한 痘癘을 보고 자신의 뜻이 견고하지 못함을 깨닫고 분발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다. 본문에는 戊子로 되어 있으나 연보에 따라 乙未로 바로잡음.
弘毅說 (40)	弘과 毅에 대한 논설이다. 聖人の 문하에서 曾子만이 進德할 수 있는 것이 弘毅였다고 주장하고, 子路, 子夏 등 제자부터 송대 주희에 이르기까지 홍의와 관련된 언급을 정리하고 그 중요성을 역설한 내용이다.
潘氏論漢文漢武說 (42)	元대의 {通鑑總論}의 저자 潘榮이 漢文帝와 漢武帝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반박하는 논설이다.
華夷相勝說 (45)	中華와 夷狄이 번갈아 교체되었던 역사를 약술하고 華夏의 참된 주인이 다시 일어나길 염원하는 내용이다.
一治一亂說 (47)	한 번 다스려지고 한번 어지러워지는 역사의 순환을 논설한 것으로 당시를 一亂으로 규정하고 孔孟의 旨訣을 밝히고 洛建의 心法을 강구하여 一治의

	세상이 도래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다.
書贈柳秀才說 (49)	유수재(미상)에게 써서 준 논설로 讀書나 誦書에서 敬의 가치를 역설하고 進修의 工夫에 힘쓸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다.
游楊尹諸公不審伊川行狀辨 (50)	游麴, 楊龜山, 尹和靖이 程伊川의 행장을 저술하지 않은 이유를 변론하는 논설이다. 그 세명은 時議를 범해서까지 그 덕을 기술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변호하면서 뒤에 주희가 나와 선생의 행적과 연보를 정리한 것이 斯道の 전송에 다행이라는 내용이다.
花峯精舍上樑文 (51)	화봉정사의 상량문이다. 四書撮要圖說序에서도 花峯이 언급되었고 觀水亭記에서는 蓮花峯이라고 하였다. 유배지인 충주 일대의 지명으로 추정된다.

권제	권제목:卷四
祭安季皞-聖世-文 (1)	季皞 安聖世에 대한 제문.
祭鄭進士-之錄-文 (2)	진사 鄭之錄에 대한 제문.
祭仲父槃窩公文 (3)	중부 申德浩에 대한 제문.
祭伯從叔文 (5)	큰 당숙에 대한 제문.
祭先妣夫人文-奔喪後 (6)	어머니 咸陽 朴氏에 대한 제문.
祭亡室淑人順興安氏文 (8)	아내 숙인 순흥안씨에 대한 제문.
祭亡室淑人東萊鄭氏文 (10)	아내 숙인 동래정씨에 대한 제문.
族兄上舍公-重模-哀辭 (14)	족형 申重模에 대한 애사.
李子聃-猶龍-哀辭 (15)	친구인 李猶龍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애사.
李子達哀辭 (16)	친구인 李子達의 요절을 안타까워하는 애사.
密菴李先生誄文 (17)	밀암 이재의 죽음을 애도하는 뇌문. 南人の 宗匠으로 선비들이 크게 의지한 분이었음을 언급하고 8~9년 문하에 출입했던 일을 회고하였다.
祖考處士府君行狀 (18)	할아버지 申文錫(1641~1685)에 대한 행장.
伯祖芝軒府君行狀 (20)	큰 할아버지 申禹錫(1636~1695)에 대한 행장.
伯考處士府君行狀 (22)	큰아버지 申德溢(1662~1690)에 대한 행장.
先考處士府君行狀 (25)	부친 申德洵(1680~1709)에 대한 행장.
仲父槃窩府君行狀 (26)	중부 申德浩(1674~1730)에 대한 행장. 자는 聖欽, 호는 槃窩, 부친은 文錫으로 갈암 이현일의 문인이다.
贈淑人順興安氏行略 (28)	숙인에 추증된 순흥안씨의 간략한 행장. 安履順의 딸이자 저자의 첫 번째 아내로 1713년(숙종 39)에 결혼하였으나 25세의 나이로 요절하였다.
淑人東萊鄭氏行略 (30)	아내인 숙인 동래정씨(1696~1740)의 간략한 행장. 鄭弢의 딸이다.
處士延安李公墓碣銘 (32)	1728. 李東美(1600~1672)에 대한 묘갈명. 무신년 저자가 경북 군위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이다. 이동미는 연안이씨로 자는 公述이고 權曙의 딸과

결혼하였다. 임금에게 {小學}을 하사받을 만큼 인정받았으나 부모가 모두 돌아가시자 과업을 포기하고 평생 處士로 살았다.

권제 권제목:卷五

年譜 (1)	伯兄 彦模가 정리한 신정모의 연보이다. 安東 豊山縣 新池洞 외가에서 태어난 시기부터 1898년 문집이 완성된 시기까지의 생애와 관련 기사를 정리했다.
言行拾錄 (15)	아들 申邦烈이 정리한 신정모의 언행록이다.
挽詞 (20)	金星慶, 許昶, 金宇楫, 崔夢翼, 金聖河, 洪重敷, 許錘, 崔宗岳, 柳東暹, 申道復, 洪重寅, 蔡城, 鄭泰膺, 南聖集, 南聖弼, 權徽, 柳正源, 柳觀時, 權惺, 張緯仁, 張緯邦, 張緯, 南聖民, 許邊, 金聖時, 許寶, 鄭棟具, 鄭泰東, 安光世, 榮世 등이 신정모를 애도한 만사이다.
祭文 (28)	許寶, 李萬甲, 金聖河, 洪一輔, 許鎰, 安邦哲, 李魯, 金瑞一, 金星慶, 鄭之鍊 등이 신정모를 추모한 제문이다.

권제 권제목:卷六

祭文 (1)	許邊, 許澈, 柳稹, 柳和, 伯兄, 從弟 禮模, 再從弟 義模, 再從叔 德潛, 再從弟 器模 등이 신정모를 추모한 제문이다.
行狀 (9)	1864. 홍문관 부교리 李敦禹(1807~1884)가 지은 신정모의 행장이다.
墓碣銘 (22)	1898. 張錫龍(1823~1906)이 지은 신정모의 묘갈명이다.
告由文 (26)	1864. 從後孫 申錫祐와 李敦禹가 지은 고유문이다.
文集後敍 (28)	1886. 金瑞一(1694~1780)이 지은 문집 발문이다.
跋 (30)	1898. 五世孫 相憲이 지은 발문이다.
文集告成文 (31)	從後孫 相夏가 지은 것으로 문집이 완성되었음을 고하는 글이다.
跋 (33)	1899. 從五世孫 申敦楨이 지은 문집 발문이다. (이동인)